

한해를 보내며



김철수

(본회이사·충북도협의회장)

또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다사다난 했던 1986년도 많은 아쉬움을 남긴채 이제 마지막 한달을 남겨 두고 있다.

한해를 보내는 마음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반성하게 하며, 또한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우리 양돈업계는 올 한해 동안 서로가 화합하고 단결한 가운데 타 축종에 비해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그동안 '호황' '불황'이라는 단어를 수 없이 반복하여 들어 왔으며,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해 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 생산조절을 위해 힘써 왔으며 돈육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사업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올 한해를 매우 뜻깊고 의미있는 해로, 양돈사에 길이 남을 만한 족적을 남겼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오랜기간 바라고 원하던 양돈회관 건립을 시행에 옮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고대하던 숙원사업이 이제 머지 않아 성취된다고 생각할때 우리는 가슴속에 느끼는 감회가 남 다르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벽찬 감격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시행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건립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많은 양돈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으로 마침내 그런 뜻이 실현 되게 되었다.

또한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확고히 하였다.

그러나 우리 양돈인들은 여기에 만족하거나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작금의 동향을 살펴보면 매우 염려스러운 면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국내의 적정 사육두수인 330만두를 넘어 섰으며, 사육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요인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은 자기는 물론 모든 양돈인을 불황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우를 범하게 되며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많은 업적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좀더 진취적인 생각과 발전적인 사고로 우리의 산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를 꼭 염두해 두어야 하겠다.

첫째, 적정사육 두수 유지에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이미 언급하였지만 우리나라는 돈육 안정 공급을 위한 사육두수는 약 330만두가 적정선이다. 그러나 배합사료 생산실적 이라든가, 후보돈 입식 상황을 감안해 볼때 상상을 초월한 증식 속도를 감지할 수 있다.

지금이야 말로 우리가 좀더 단합하고 동지적인 힘을 발휘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모든것은 자기 개인의 힘이나 일부의 역할을 가지고 지배하기는 힘들다. 서로 협조하고 유대를 가질때 만이 어떤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된다. 돼지가격만 하더라도 돼지하나만의 힘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경제의 성장과 대체제, 보완제 등의 종합적인 가격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게된다. 혼자서만 잘살겠다는 생각은 이미 전 근대적이고 낙후된 사고방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양돈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양돈인들의 화합이 필요하며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과감한 결단의 시기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양돈불황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것을 스스로 막을 수 없다면 양돈인들은 스스로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결과를 낳게 된다.

둘째, 자조금 제도의 조기 실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각 축종별로 자기들 산업의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생산자 스스로 참여하는 자조금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일은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며, 남에게 의존하려는 의타심을 배제한 것으로 선진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는 아직 자조금 제도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꼭 실현해야 할 과제라고 믿는다.

우리협회에서는 이미 이 제도의 정착에 앞서 이와같은 목적으로 돼지고기 소비를 위한 홍보 분담금을 자율적으로 부담하여 양돈산업의 발

전을 위한 소비홍보 사업을 벌이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 양돈인들 만이라도 타 축종의 귀감이 될 이 제도에 적극 동참하여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이와 같은 사업은 회원, 비회원을 떠나 한 산업의 동참자로 스스로 참여하여야 하겠으며, 무임승차하는 몰상식은 없어야 하겠다.

소비홍보 분담금 제도가 잘 시행되면 자조금 제도의 조기 정착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다.

세째, 질병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자.

대개 호황에서 불황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주기적으로 많은 질병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와같은 실책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겠다.

이미 일부지방에서는 산발적인 전염병 발생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질병이란 들어오기 전에 예방을 해야지 들어온 후에 막으려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근절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재화 되어 축사의 청정화 유지가 어렵게 된다. 더 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출입자 통제와 격리 사육으로 질병으로부터 돼지를 보호해야 한다.

네째,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대개 스스로를 탓하기에 앞서 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데 이미 지나간 후의 책임소재는 문제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스스로 보호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남도 보호해 주지 않는다.

양돈산업은 양돈인 모두의 것이다.

양돈산업에 대한 문제는 양돈인 스스로 대처하여 해결해야 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병인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자성해 보고 잘못된 점을 반성하여 '87년을 힘찬 도약의 해로 맞이하자. *